

# “佛法은 정의구현 경찰의 지표와 같아”

### 3월 30일 경찰대 아산캠퍼스 법당 이전 개원

#### 십시일반 불사금 모연 동참해 30년 용인캠 떠나 새등지 포교 41명 규모, 지도법사 해전 스님 “학생 심리 안정 위해 노력할 터”

1981년 제1기생 입학을 시작으로 35년간 국가와 사회질서를 책임지는 경찰인을 양성해온 경찰대학교가 아산캠퍼스 이전 후 본격적인 ‘아산시대’ 막을 올렸다. 이에 따라 30년 가까이 용인캠퍼스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앞장서 온 경찰대학 법당도 아산캠퍼스에 새 동지를 열었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경찰전법단(단장 지현)은 3월 30일 경찰대학 아산캠퍼스 학생회관 2층에서 큰법당 점안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경찰전법단 부단장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 백승호 경찰대학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 문을 연 큰법당은 41명 규모로 지어졌다. 이전 법당에 비해 공간은 2배 가량 넓어졌고, 탕비실 등의 부대시설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마곡사·조계사·봉은사·육전암 등 사찰에서 각 1,000만원씩 불사

금을 후원했으며, 일반불자와 경찰 등도 법당 불사에 동참했다. 아울러 법당 이전에 따라 지원사찰이 된 마곡사는 지난 해부터 주지스님 등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탕화 및 불단 조성 등을 지원 하는 한편, 아산 불교사 주지 해전 스님을 지도법사로 임명했다.

개원법회 법사로 나선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경찰대학의 고급 인력을 불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포교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부처님을 찾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찰불자들이 먼저 다가가고, 나누고 실천하는 중생이 되자”고 강조했다.

경찰전법단장 지현 스님은 부단장 원명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경찰관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여러분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원을 세운 분들”이라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수행이 여러분의 꿈과 같다. 부처님 말씀을 되새겨 긍지를 갖고 모두가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백승호 경찰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인과법에 기초해 선한 행동으로 좋은 업을 쌓고, 악한 행동을 멀리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은 정의의 길을 실천하며 살아가



조계종 포교원 산하 경찰전법단은 3월 30일 경찰대학 아산캠퍼스 학생회관 2층에서 큰법당 점안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는 경찰들에게 삶의 지표와도 같다”면서 “새로 조성된 법당에서 우리나라 자비와 지혜의 향기가 경찰대학생들을 통해 세상에 퍼져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학교 불자들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삼독을 참회하고, 불법(佛法)에 따라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경찰대학법당은 1980년대 중반 수원포교당(현 수원사) 주지였던 성관 스님의 적극적인 불사로 건립됐다.

2010년까지 학생법회관 이어오다 고종현 포교사가 교직원불자회 창립을 주도하며 한 달에 2번씩 교직원법회도 실

시하고 있다. 경찰전법단의 관리 이후 체계적인 법회활동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교직원법회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전법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교구본사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도법사 해전 스님은 “새로운 소임을 맡아 경찰대학법당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공부에 치중해 종교생활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아동성폭력 예방 ‘나나극단’ 10주년 공연

###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폭행 대처법 교육 인형극



‘나나극단’이 3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단 10주년 기념발표회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자’를 진행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단 ‘나나극단(단장 송미령)’이 3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단 10주년 기념발표회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자’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회제2어린이집 외 영등포구 소재 6개 어린이집 아동 및 지도교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나나극단은 이날 △친구들 사이에서 놀이와 장난으로 생각하는 성희롱 상황 △낯익은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행과 올바른 대처법 △낯선 사람들의 유괴 혹은 성폭행과 대처법 등을 담은 인형극을 펼쳤다.

송미령 단장은 “최근 가슴 아픈 아동 피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극단의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의 예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단원들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5명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나나극단은 지난 10년 간 과천·안양·군

포·의왕 등 경기 지역을 비롯해 최근 부산·제주도 등 활동무대를 넓히며 300여 회 전국 공연을 실시했다. 2013년과 2015년에는 ‘글로벌 러브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나나극단 측은 “앞으로는 아동성폭력 예방과 더불어 학교폭력 및 다문화교육 ‘틀림과 다름’ 등을 실시하며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인형극을 선보일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들의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이름 기자

## 위국헌신·위법망구 정신 되새겨

### 국군불교총신도회, 3월 25일 창립 16주년 기념법회

‘전 장병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포교하자’는 기치 아래 2000년 출범한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았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현집, 이하 군불총)는 3월 25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 중무홀에서 ‘창립 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법회는 ‘국운융창과 국군장병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회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관 변재선 소장, 호국 총의사 광범호 대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김현집 회장은 “최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가 지속돼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며 “군불자들은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군인정신’과 ‘위법망구(爲法忘軀)의 불자정신’으로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국가와 군의 주역이 돼 호국불교를 실천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따뜻한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총신도회가 앞장서 달라”며 “남북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법당 무량수전 신축발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군교구장 정우 스님이 군불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정우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깊은 신심과 신행을 동력 삼아 주어진 소임에 매진하시는 총신도회 진력에 감사드립니다”고 격려했다.

군불총은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전방 격오지 소규모 법당 20곳에 법회활동을 지원하고, 군법당 간부 불자 네트워크를 통한 유대강화 등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훈광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덕정 정사, 원용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등 각 종단 스님들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및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 불교108울트라마라톤 4월 16~17일 개최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회장 정해선)는 오는 4월 16~17일 서울 일대에서 ‘제6회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를 넘어 불교 성지인 사찰을 순례하는 실천수행의 하나로, 아마추어 울트라마라토너에 대한 포교 및 참가자들에게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행사다. 마라톤은 조계사에서 출발해 봉원사-백련사-수국사-과주 보광사-고양 흥국사-불국사-개운사-조계사에 이르는 코스로 100km와 50km로 나눠 진행된다.

마라톤이 가능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대회 참가 동반자의 조력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 참가비는 5만원, 완주패는 대회종료 후 개별 신청자에 한해 별도 제작한다. 체크포인트는 58km지점이며, 9시간 30분 내에 통과해야 한다. 완주 제한시간은 17시간. 010-5398-1279 윤호섭 기자

## 고사리 손으로 동전모아 유치원 건립

### 광진구 어린이들 기금 마련 ‘쌍꿈민재이 유치원’ 준공



지구총공생회는 3월 24일 캄보디아 쌍꿈민재이 마을에서 ‘쌍꿈민재이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광진구 어린이들이 십시일반 모은 동전으로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선물했다.

지구총공생회(이사장 월주)는 3월 24일 캄보디아 캄풍스푸 주(州) 쌍꿈민재이 마을에서 ‘쌍꿈민재이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이하 쌍꿈민재이 유치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유치원은 아동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칸 교실 규모로, 정부 교사가 파견돼 아이들을 지도한다. 또한 지구총공생회의 운영 모니터링 및 광진구 어린이들과 교류, 교사 연수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쌍꿈민재이 유치원”은 광진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소속 25개 유치원 2,000여 명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모은 사랑의 저금통 및 바자회 수익금 4,500여만 원으로 건립돼 눈길을 끌었다.

지구총공생회 측은 “광진구 어린이들이 모은 동전이 기적을 이뤘다”며 “이에 현지 주민들도 토지구입, 국가계약대 및 울타리 설치를 위해 힘을 보태는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기정 광진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들이 가난 때문에 공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캄보디아 아이들을 생각하며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고, 바자회를 여는 등 기금을 마련하는 동안 내내 기쁜 마음이었다. 쌍꿈민재이 유치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며, 세계적인 미래 인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이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 www.njsdfx.co.kr

##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 사 과 정	3년	10명	· 입학신청서 1부
박 사 과 정	3년	10명	· 여권용사진 10매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 2 학교소개

- ▶ 세계적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 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모집기간 : 2016년 4월 30일 까지 수시전형

### 5 문의처

- ☎ 전화 : 86-25-84028478 / 86-13-585195431
- ☎ 팩스 : 86-25-84028479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